

자동 환기관리 시스템 설치로 생산성 증가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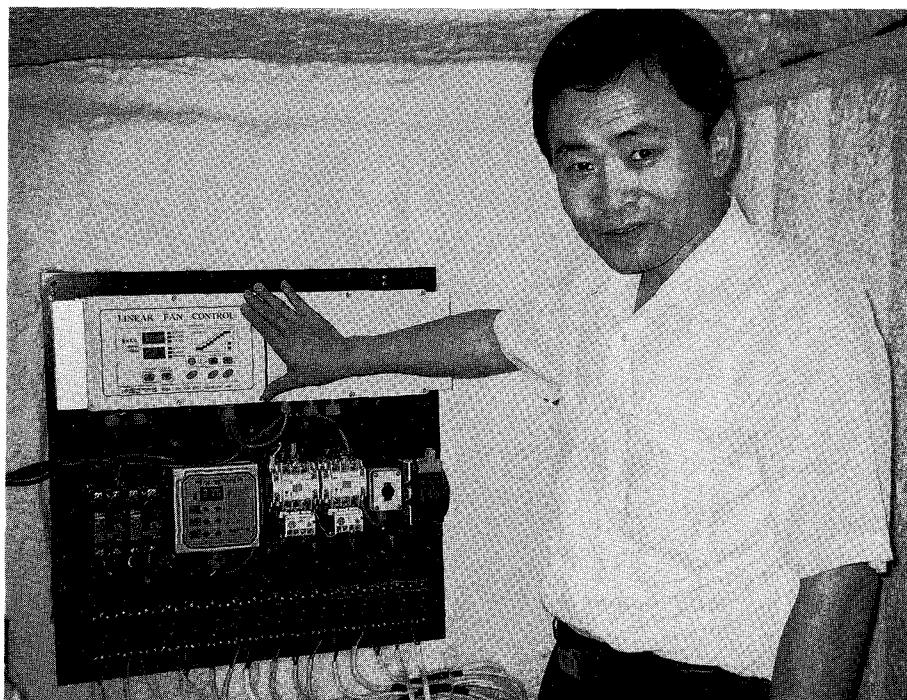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 가을에 들어서면서 농장마다 환기관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설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농장의 경우 가을철 호흡기 질병 방역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

니다. 가을철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계사들은 계사 온도관리와 환기관리 조화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김선호씨 육계 농장이 지난 3월부터 자동 환기 관리 시스템을 변경한 후 생산성이 향상되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는 산간지역으로 산 기슭을 따라 집들이 지어져 있고, 논과 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간 거리에 있는 고송농장은 고 송리 마을의 맨 뒤쪽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입구에 차량소독기가 설치되어 있고, 10m 떨어진 곳에 개방



▲ 자동 환기 설치는 지역적 기후와 계사의 위치 등 많은 조건을 철저히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효과가 있다는 밀전자 김대천 사장

계사 2동과 무창계사 1동이 나란히 들어서 있었다.

계사 3동에 모두 4 일령 된 병아리 6만수 가 사육되고 있었다.

무창계사에 들어서 자 후끈한 계사 열기 가 들어오면서 평화롭 게 놀고 있는 초롱초 롱한 병아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계사안은 너무나 조 용했고, 간혹 열풍기 와 훈이 짧은 초간격 으로(전자식 타임방 식과 속도방식 응용) 가동되었다가 멈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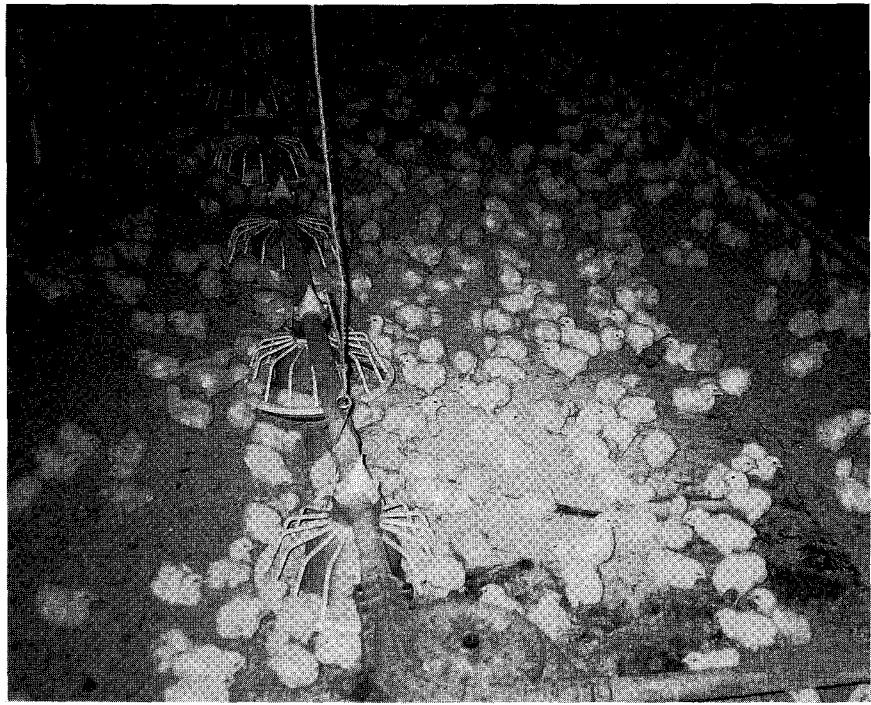
480평에 달하는 새로 신축한 무창계사는 폭 이 16m, 길이 100m로 평당 62수가 사육되고 있었다.

김선호 사장은 무창계사 신축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급이라인과 환기관리시스템에 정성을 기울였다. 소탈하고, 고기 잡는 것을 좋아하는 김사장은 무슨 기계든지 조작 능력이 뛰어났다.

자동 환기 시스템 설치로 사양관리 수월

본 기자가 방문한 지난 12일 김사장은 겨울 철 환기 관리 준비를 모두 끝내고 한가롭게 고기잡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병아리 입식 후로 한참 분주할 시기임에도



▲ 방안의 자동 중앙 환기 컨트롤 장치로 모든 계사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불구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 봄에 설치한 환기컨트롤 장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사장이 관리하는 3개 동의 온도와 계사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제어 컨트롤 장치가 있어 금방 계사의 모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온도이상, 기계고장, 통신라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경보를 울려주어 금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환기시설은 계사 구조상 크로스 훈을 강화 시켜 대형훈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75mm 입기구를 1.8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보통 이 시설을 하면 480평 무창계사의 경우 500W 훈 8대면 충분한데 김사장은 1마력 훈 16대를 설치하여 환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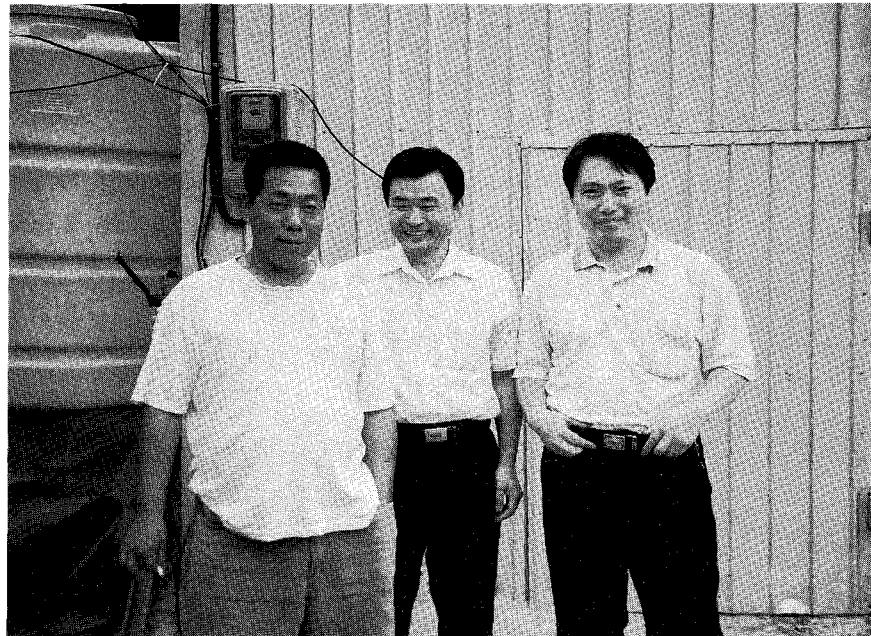
겨울철에는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16대 중 8대는 사용하지 않고 8대만 가동하게 된다.

15년간 질병관리 노하우 축적

환기 시설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9월초 양평 지역의 밤과 낮의 온도차이는 16°C 차이를 나고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온도 편차 심한 편이다.

온도 편차로 인하여 인근의 양계장들이 호흡기성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김선호 사장은 자동 환기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호흡기성 질병 걱정을 덜어내고 있다.

뉴캣슬병 예방 백신은 1일령, 10일령의 스프레이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14일령에 병



▲ 김선호 사장은 환기 방법은 농장마다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좌부터 김선호 사장, 김대천 밀전자 사장, 이영운 밀전자 실장)

아리 상태를 보아 가면 스프레이를 하는 등 15년전 양계업에 참여한 후 질병관리에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환기 전문가와 상담후 농장수익 증대

김사장은 계약 사육 농가로 살아남기 위해 서는 사료비, 약품비, 연료비 절감은 필수적이며 특히, 사료비 절감만이 농가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김사장은 지난 육계 출하 때 생산지수 220라는 성적을 내었다. 여기서 얻은 농가 순이익은 사료량을 감안할 때 약 10톤, 연료비 절감은 타농장에 2.5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1년에 6회전을 하여 무창계사 신축 비용 1억5천만을 2년 안에 상환할 계획이다.

김사장은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시스템에 역점을 두고 있고, 환기 관리의 궁금증이나 기계 작동에 대하여 김대천 밀전자 사장과 자주 상담을 하고 있다.

밀전자 김사장은 몇 년전 국내에 적합한 환기 시스템의 개발하여 보급한 장본인으로 김선호씨 농장의 모든 환기 관리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계